



기획재정부

보 도 자 료

다시,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5. 25.(수) 12:00	배포 일시	2022. 5. 25.(수) 10:00
담당 부서	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	책임자	과 장 오재우 (044-215-4710)
		담당자	사무관 권용준 (044-215-4716)

2022년 1/4분기 대외채권 · 채무 동향

- '22.1/4분기말 대외채권 1조 798억불, 전년말 대비 △5억불 감소
 - '22.1/4분기말 대외채무는 6,541억불로 전년말 대비 217억불 증가
 - 미 연준 금리 인상 전 선(先)조달 수요 등으로 장·단기 외채가 모두 증가
 - 외인(外人) 재정증권 투자, 연초 국책은행의 대규모 외화채권 발행 등 일부 특이요인이 가세하며 총외채 증가폭 확대('21.4/4 +175억불 → '22.1/4 +217억불)
 - 단기외채 증가율(전분기 대비 6.2%)이 장기외채 증가율(2.5%)을 상회하며 단기외채/총외채 비중이 상승했으나 여전히 양호한 수준 유지
 - * 단기외채/총외채(%) : ('21.4/4)26.0 → ('22.1/4)26.7, 과거 10년간 분기 평균 28.7%
 - 다만, 단기외채/외환보유액 비율은 외환보유액 감소 영향으로 다소 큰 폭 상승했으나 여타 신흥국과 비교시 여전히 낮은 수준
 - * 단기외채/보유액(%) : ('21.4/4)35.6 → ('22.1/4)38.2, 과거 10년간 분기 평균 33.8%
 - ** 단기외채비율('21년말, %) : (터키)107.7(아르헨)105.5(말린)80.5(남아공)47.0(中)37.9(韓) '22.1/4)38.2
 - 글로벌 금리 상승 기조 등으로 향후 외채 만기 구조가 단기화될 가능성 → 공공기관 장기 외화채 발행 적극 협의 등을 통해 만기 장기화 노력
-
- (대외채권) '22.1/4분기말 대외채권은 1조 798억불로 전년말(1조 803억불) 대비 △5억불 감소
 - 현금·예금(+58억불) 및 기타부문(비은행권·공공·민간기업) 채무상품직접투자(+51억불) 등은 증가하였으나, 증권투자(△79억불) 및 외환보유액(△53억불) 등은 감소

□ (대외채무) '22.1/4분기말 대외채무는 6,541억불로 전년말(6,324억불) 대비 217억불 증가, 전분기(+175억불) 대비 증가폭 확대

○ (만기별) 단기외채(만기 1년 이하)는 1,749억불로 전년말 대비 102억불 증가하였고, 장기외채(만기 1년 초과)는 4,792억불로 115억불 증가

* 단기외채 증감(억불) : ('21.3/4)△127 (4/4)+13 ('22.1/4)+102, +6.2%
장기외채 증감(억불) : ('21.3/4)+204 (4/4)+162 ('22.1/4)+115, +2.5%

○ (부문별) 정부(+72억불), 은행권(+108억불), 기타부문(비은행권·공공·민간기업, +61억불)은 증가한 반면, 중앙은행은 감소(△24억불)

- 정부는 외인(外人) 채권 투자(+59억불), 은행권은 증권발행(+53억불) 및 외화 차입(+44억불), 기타부문은 증권발행(+28억불) 및 무역신용(+7억불) 중심 증가
- 중앙은행은 외인(外人) 통안채 투자 감소 영향으로 대외채무 감소

□ (순대외채권) '22.1/4분기말 순대외채권(대외채권-대외채무)은 4,257억불로 전년말 대비 감소(△222억불)

□ (평가) 외채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 유지

○ '22.1/4분기 외채 증가폭 확대는 미 연준 금리 인상 전 先조달이 주 원인

* 외채 증가폭 : '21.4/4분기 +175억불 → '22.1/4분기 +217억불

- 이에 더해 작년말 전액 상환되었던 재정증권이 2월부터 다시 발행*됨에 따라 외인(外人) 투자가 증가하고, 연초 일부 국책은행이 대규모 해외채권**을 발행하는 등 일부 특이요인도 작용

* 재정증권 발행 규모(조원) : ('21.1/4)14.9 (2/4)12.0 (3/4)2.0 (4/4)0 ('22.1/4)8.9

** 수출입은행 : 1.6일 30억불 외화채권 발행, 정부外 국내기관 중 역대 최대 규모

○ 단기외채 증가율(전분기 대비 6.2%)이 장기외채 증가율(2.5%)을 상회하며 단기외채/총외채 비중이 상승했으나 과거 평균 대비 여전히 양호

* 단기외채/총외채(%) : ('21.4/4)26.0 → ('22.1/4)26.7, 과거 10년간 분기 평균 28.7%

- 다만, 외환보유액 감소 영향으로 단기외채/외환보유액 비율이 2.6%p 상승*했으나 여타 신흥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**

* 단기외채/보유액(%) : ('21.4/4)35.6 → ('22.1/4)38.2, 과거 10년간 분기 평균 33.8%

** 단기외채비율('21년말, %) : (터키)107.7 (아르헨)105.5 (말린)80.5 (남아공)47.0 (中)37.9 (韓 '22.1/4)38.2

- (향후 대응) 재정거래 유인 확대*에 따른 단기차입 증가 가능성, 내외 금리차 축소**에 따른 외인(外人) 중장기 원화채 투자 유인 둔화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외채 만기 구조 단기화 가능성

* 환헷지후 수익률(3개월물, 일평균, bp) : ('22.1)21 (2월)33 (3월)13 (4월)41 (5.1~5.20)38

** 한-미 기준금리차 전망(IB평균, %) : ('22.2/4)0.15 (3/4)△0.35 (4/4)△0.60

- 공공기관의 장기 외화채 발행을 적극 협의*하고 이를 통한 외화자금 공급이 재정거래 유인 축소 및 단기외채 증가세 둔화로 이어짐으로써 외채 만기 구조가 장기화될 수 있도록 노력

* 외국환거래규정 제7-14조 제6항 : 공공기관이 미화 3천만불 초과외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협의 후 신고하여야 한다.

< 대외 채권·채무 현황 : 기말기준 >

구분	2019	2020	2021				2022	전기비
			1/4	2/4	3/4	4/4	1/4	
총 외채(억불)	4,707	5,506	5,700	6,072	6,149	6,324	6,541	+217
단기외채(억불)	1,355	1,601	1,649	1,761	1,635	1,647	1,749	+102
장기외채(억불)	3,353	3,906	4,051	4,310	4,514	4,677	4,792	+115
단기외채/총외채(%)	28.8	29.1	28.9	29.0	26.6	26.0	26.7	+0.7%p
단기외채/보유액(%)	33.1	36.1	37.0	38.8	35.2	35.6	38.2	+2.6%p
대외채권(억불)	9,572	10,344	10,634	10,633	10,782	10,803	10,798	△5
순대외채권(억불)	4,864	4,838	4,664	4,562	4,633	4,479	4,257	△222

※ 통계 출처: 2022년 1/4분기 국제투자대조표(잠정) (한국은행, '22.5.25.)